

강릉 종합전시공간 영상테마파크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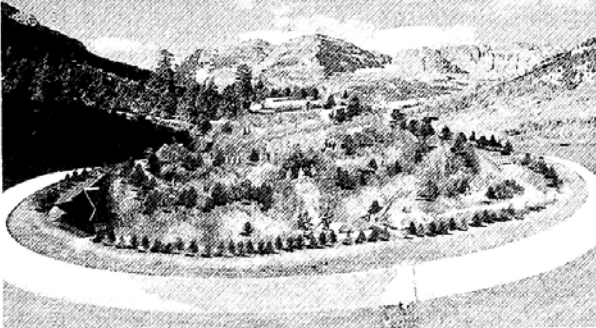
'불교관 카르마 스페이스' 추진

가르침 상징 조형물·특수효과 장치

나선형 건축물에서 깨달음 과정 체험

불교적 가르침에 입각해 수행의 단계와 과거, 현재,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전시공간이 강원도 강릉 영상테마파크 안에 설립된다.

(주)카르마 스페이스(대표이사 백영기는 최근 강릉 영상테마파크 조성 업체인 (주)버추얼시티21(대표이



강릉 영상테마파크안에 설립될 불교체험공간 '카르마 스페이스' 조감도.

불자의 생각

대선후보들의 공약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들의 대 불교계 공약이 투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66명이 동참한 뷰트뉴스 네티즌설문조사에서 후보자들

응답률	조급하다	상당히 준다	충분히 준다
31.9%	57.5%	10.6%	

“불교계 공약 대선투표에 영향” 89.4%

의 대 불교계 공약이 불자들의 투표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38명(57.6%)이 조금 준다, 21명(31.8%)이 상당히 준다고 응답. 사람보다는 공약을 보고 투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은 7명(10.6%)에 불과했다. 공약에 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질문에 51명(77.3%)이 관심있다, 15명(22.7%)이 관심없다고 답변했다.

김두서 기자

문화, 깨달음의 과정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르마 스페이스의 주요 기능이다. 백영기 대표이사는 “카르마 스페이스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깨달음의 과정 등을 배우고 느끼는 공간”이라며 “건물의 구조가 나선형인 것도 배움이나 깨달음에 있어 최고의 경지로 이르는 과정을 상징하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밝혔다.

5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강릉과파 단지에서 5만여 평에 달하는 영상테마파크는 카르마 스페이스 외에도 코메디월드21, 사이버월드21, 애니메이션월드21, 웨딩월드21 등 첨단 산업과 관광, 휴식이 공존하는 미래형 테마공원이다. 이 가운데 유일한 종교시설인 카르마 스페이스는 연건평 3천 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나선형 건축으로 조성된다.

(주)카르마 스페이스는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회를 11월 중에 실시해 투자 및 참여자를 공식 모집할 계획이다. 02)730-0798

임연태 기자 ytlm@buddhania.com

“경승단 조직력 강화 포교 후원조직 필요”

경승화살화를 위해선 경승단 조직력 강화와 경찰포교 후원조직 건설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1일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승실장 연수에서 경승단장 도영삼님은 “경찰포교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영삼님은 “경승지단 활성화 및 중앙사무국 역할 강화, 경승단 연수 및 지역간담회 정례화, 경승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승에 대한 관심과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 사업연합회를 적극 활용 △경승활동 근거지인 법당과 경승실 마련 △미량급 경찰불교회 결성 지원 △체계적인 법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영삼님은 “약 5만여명에 달하는 정·의경 포교를 위해서 내년 전의경부대 현황조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승지단 간담회를 통해 활동계획을 구체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공중과 방송들 불교왜곡 극심

스님 일화 잘못 인용·우스개 꺼리로

공중과 방송들의 불교왜곡과 모욕적인 묘사가 도를 넘고 있다.

6일 밤 방영된 MBC의 ‘타임머신’에서는 스님이 십자가 깃발 아래서 할렘루아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 연출되어 불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방영분 가운데 네 번째 에피소드 ‘기적은 ★이루어진다’의 내용 중 장애자성지순례단에 공예를 배려하던 애꾸눈 스님을 포함시켜 억지웃음을 유발시켰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됐다.

MBC ‘타임머신’ 시청자 의견 코너에는 불자들의 항의가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가톨릭 관련 성지순례에 스님이 끼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울리지 않고 이는 불교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격분하고 있다. 스님의 모습이 희화화되고 날조되어도 되는 것인지, 친절한 스님의 모습, 광채에 덮인 교황의 모습과 너무도 비교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경 기자

“타임머신” 담당 임남희 PD는 “양드레 김이나 영구와 같이 공예가 유명한 캐릭터이기에 그 캐릭터를 차용해 작품의 재미를 배가시켰던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해명했다.

EBS도 “도올, 인도를 만나다” 4일 방송에서 김홍도 씨가 원색적인 육두문자를 포함한 춘성스님의 일화를 소개해 물의를 빚었다.

KBS 제1라디오는 지난 3일 방송된 ‘역사탐구’ 코너에서 일제시대 신여성상을 다루면서 일명 스님이 죽은 전에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지, 친절한 스님의 모습, 광채에 덮인 교황의 모습과 너무도 비교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재경 기자

우즈베크에 한국사찰 건립

자광사 내년 1월 착공

경윤론 74부 380여권을 한역한 구마라집 스님이 출가하고 공부한 땅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사찰이 건립된다.

우즈베키스탄불교협회(지도법사 양기환)는 수도인 타슈켄트시 구 일류시지에 대지 1만평, 건평 3천평의 한국 및 이슬람 양식을 혼합한 자광사를 건립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키로 했다.

미화 20만 달러가 소요되는 3층 규모의 자광사에는 대웅전, 아미타전, 미륵전(교육관), 지장전(명부전 및 장례예식장), 종각 9층 금륜탑, 요

목탁소리 강유신 (취재2부 기자)

포교사 선발 이원화

포교사 선발이 이원화된다.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29개 불교교양대학으로 구성된 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2월 8일 자체 포교사 고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조계종 소속 포교사 외에 연합회 포교사가 활동에 나서, 포교 일선에 각자 않은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교양대학이 자격 요건 미달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형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조계종에 등록하지 못한 200여 교양대학 졸업생이 포교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조계종 등록 불교대학에서 공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조계종과 연합회 양측은 이번 일을, 선의의 경쟁 속에서 포교사 교육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나가기로 했다.

들과 함께 연합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신도증이 있는 교수만 임용해라” 포교원이 발간한 교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라 등의 규정도 우수 교수 선발 및 우수 교재 연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고 반발이 컸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교양대학이 자격 요건 미달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형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조계종에 등록하지 못한 200여 교양대학 졸업생이 포교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조계종 등록 불교대학에서 공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조계종과 연합회 양측은 이번 일을, 선의의 경쟁 속에서 포교사 교육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산 노선조사위’ 첫모임 무산

“모든 공구 조사범위 확대” 요구 시공사측 거부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조사위원회 첫 모임이 조사구간과 인원구성, 경비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태측)는 4일 △노선조사구간을 일산~퇴계원 전 구간을 할 것 △시공사측 노선조사위원회 중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의 관련 인사 배제 △노선조사 소요경비 정부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고속도로 측은 5일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와 불교환경연대는 8일 “인접 공구의 공사를 계속하

면서 노선조사 범위에 4공구 외의 구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국립공원을 파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태복 장군이 4년여동안 불교정당 군사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군인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명예를 훼손당하면서 재판을 지속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조속한 명예 회복을 청원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한편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은 8일 3.5공구 국립공원을 파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닐 뿐 아니라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태복 장군이 4년여동안 불교정당 군사재판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군인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명예를 훼손당하면서 재판을 지속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조속한 명예 회복을 청원한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남동우 기자

모시는 말씀 / 태고탄신 701주년 기념

- 태고보우 국사 사상연구 제5차 학술발표회 -

한국불교 태고학회는 한국불교의 중요요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을 계승하여 어두운 이 시대와 사회에 빛을 던져 주고자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현대사회의 갈등과 태고사상>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학술회의에서 우리는 문명의 전환점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에 대하여 태고국사의 사상이 제시할 수 있는 방향과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갈등에는 여러 양상이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태고사상은 한국불교의 갈등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태고사상은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가 태고사상은 자연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보산업 문명 시대에 태고사상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다중교사회에서의 태고사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문명의 여러 문제와 세계 평화, 그리고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술행사를 통하여 태고사상이 교계뿐 아니라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의 여러 갈등의 해소와 미래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정신으로 조망되기를 바랍니다.

불기2546년 4월 17일
서기2002년

한국불교 태고학회 회장 서무공 합장

제 1차

태고탄신일 701주년 [음 9월 21일]
※대회 일자 : 불기 2546년(2002년) 10월 25일[음 9월 20일] 13시

※대회 장소 : 마포 불교방송국 3층 근개울 기조연못 연대사회의 갈등과 태고사상 무 공(태고학회장)

제1주제 태고사상과 한국불교의 갈등현상 이종훈(동국대학교수)

제2주제 태고사상과 인간심성의 문제 최연자(원광보건대학교수)

제3주제 종교간의 갈등과 태고사상 김용표(동국대학교수)

제4주제 사회적 불평등문제와 태고사상 박경준(동국대학교수)

제5주제 환경위기와 태고사상 장 익(위덕대학교수)

※토 론

1. 서운길 교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2. 법연 스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3. 우 제 선 (동국대학교 교수)
4. 안 자 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 김 상 영 (중앙승가대학교수)

제 2차

태고탄신일 702주년[음 9월 21일]
※대회 일자 : 불기 2547년(2003년) 음 9월 20일

제6주제 태고사상과 민족의 정치적 갈등문제

제7주제 정보산업 문명시대와 태고사상

제8주제 세계평화의 문제와 태고사상

제9주제 태고사상과 남북통일 문제

제10주제 지구촌시대의 경제문제와 태고사상

태고학회임원

총 사 덕암(태고종종장), 서암(전조계종종장), 승선(총계종종회의원)

중 명 운산(태고종총무원장), 정대(조계종총무원장), 혜초(태고종종장,전총무원장), 최주(경실련이사장,전조계종총무원장), 일우(태고종종장,원로의장), 남과(태고종종장,원로의원), 일공(원종종종장), 법광(태고종종장,사정위원장), 무철(재,일불선교종종장)

고 문 서운길(불교진흥원이사장), 손희경(국회의원), 송석구(동국대총장), 정태혁(동국대명예교수), 김영태(동국대명예교수), 오형근(동국대명예교수)

심사위원장 서운길(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연구위원장 권기중(동국대불교학회장)

연구위원 김상현(동국대학교수), 법산(동국대학교수), 종봉(승가대총장), 허홍식(영신문화연구원고수), 성봉(동국대학교수), 풍호(동국대학교수), 이봉은(동국대학교수), 김용표(동국대학교수), 박경준(동국대학교수), 장익(위덕대학교수), 최연자(원광보건대학교수), 김방룡(영산불교대학교수), 진원(동국대명예교수), 주명철(동국대명예교수), 법연(동방불교대학교학처장)

자문위원 성광(근교진흥위원장, 화계사주지), 동광(도선사, 청담복지재단이사장), 동봉(재,일불선교종종무원장), 청송(재,일불선교종종무원장), 도기(전국일불문도회장, 관음사주지), 성각(한국불교승가회중앙회장), 현경(보림사주지), 인공(영산재보존회장, 봉원사주지), 원성(강북사암연합회장), 자원(태고종총무원부위원장), 정각(전 일불선교종무원장), 환은(태고종사정위원장), 도은(태고종원로의원), 한정성(금강선원이사장), 김철희(태고종신도명회장), 성순경(한국불교전국여부사회이사장)

회 장 무공(태고종종종교원장)

상임부회장 대은(태고불교범용대학장)

부 회 장 지옥(태고종원로의원,전종문예위원장), 범창(선암사포교국장), 지공(재,일불선교종사정위원장), 원배(태고종총무원장), 혜광(용화정사주지), 선산(사)21세기한국불교사회이사장, 혜은(태고종포교연구실장)

연구기획실장 김은진(동국대불교대학원학과장)

총무이사 법연(동방불교대학교학처장)

교무이사 성덕(수덕사주지)

재무이사 법연(태고종포교연구위원장)

사회이사 도봉(약사사주지)

포교이사 경당(태고종규정부장)

호법이사 동우(태고종교임부장)

연구이사 도각(태고종원의회장), 배원(명방사주지), 대봉(봉선사주지)

홍보이사 석환(선문화대표)

국제이사 철안(서울불교주간)

이 사 배원(재,일불선교종종무원부위원장), 덕봉(성국사주지), 법무(전태고종종무원부위원장), 법은(재,일불선교종종무원장), 화암(재,일불선교종종무원장), 정담(태고종포교원신도국장, 해운사주지), 복경(복정사주지), 성호(남가정사주지), 삼현(능엄선원주지), 법성(태고종규정국장), 법성(재,일불선교종사정위원장), 대선(마리정사(대선사)주지), 월단(덕화사주지), 태일(달마선원주지), 지관(정토사주지), 혜성(성덕사주지), 승덕(관음사주지), 풍영(재,일불선교종원로), 우종근(영인동선대표), 이기표(부산보현의집위원장), 최인순(무량사선정회장), 박범준(한림, 무량사학성회장)

감 사 명종(재,일불선교종종회의장), 형봉(태고종종종보원위원장)

태고법손 5대 결의문

(불초(佛祖)의 혜명(慧命)에 따라)

1. 태고 법손 종단은 한국불교 중흥 및 중흥조이신 태고탄신일 다례제를 반드시 봉행하자
2. 태고 법손은 한국불교 중흥 및 중흥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사상 연구 선양사업에 동참하자
3. 태고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일불승사상 및 선교경수의 대법을 연구 수행 중흥을 진작하자
4. 태고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운용 통틀 통합의 정신 실천으로 한국불교의 대화합과 통합을 도모하자
5. 태고법손은 태고보우국사의 원용불교실천 사상을 현대 사회의 모든 갈등 해소와 미래 인류 평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대 정신으로 승화하자

※ 본 태고학회는 임원 의무금(년 1백만원)과 주최종단 및 단체의 후원금,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뜻있는 태고법손의 동참을 바란다.

불기2546년 7월 8일
서기2002년